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 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 사례를 중심으로*

박 홍 서
한국외국어대학교

◆ 논 문 요 약 ◆

본 논문의 목적은 지난 5세기 간 발생하였던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의 논리를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체제수준, 단위수준,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인식수준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신현실주의 분석모형을 상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각 사례에서 각각 명-일/ 명-후금/ 청-일/ 미-소간에 발생한 세력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단위수준에서 정치화된 이슈들로는 각각 왜구문제/ 모문룡문제 및 조선의 대후금 균형정책/ 조선문제/ 대만 및 대중승인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은 역내 세력변화와 정치화된 이슈들이 정책결정자들의 위협인식을 제고시키는 상황에서 제3국이 한반도에 군사침공을 하거나(1592년, 1894년 및 1950년 사례), 또는 한반도 정치세력이 경쟁국과 연합하는 경우(1627년 사례) 감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신현실주의, 중국외교정책, 군사개입, 한반도, 전략문화

I. 서 론

> 어떠한 중국정부라도 압록강으로 접근해오는 다른 강대국을 목도한다면, 능력이 있는 한 거의 확실히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다(Waltz 1986, 332).

1592년과 1950년은 358년이라는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중국(각각 명,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이라는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였던 시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1627년, 1636년, 그리고 1894년에도 중국(각각 入關前의 후금 및 입관후의 청)은 한반도에 군사개입을 감행하였다. 이와 같이 군사개입의 주체가 상이하고 시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은 왜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는가? 각 사례마다 특수한 원인들이 존재하였는가? 아니면, 모든 사례에 공통

* 본 논문에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국방대학교 하도형 교수님과 세분의 심사위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변인이 상존했는가? 본 논문의 목적은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해 상기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논리를 분석하는 것이다.[1] 따라서, 본 논문은 1592년 이래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을 각 사례에 고유한 특수성이 아니라 각 사례를 관통하는 체제(system) 수준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월츠에 따르면, 신현실주의 이론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왜 상이한 단위들이 유사한 행위를 하는가?"이다. 즉, 역사, 문화, 이념적으로 상이한 국가들이 공통된 행위를 할 경우 그 국가들의 특수성은 더 이상 독립변인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단위수준이 아닌 체제수준의 변인으로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Waltz 1979, 72).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사례는 신현실주의 이론의 적절한 피설명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 군사개입을 감행한 주체는 비록 중국이라는 칭호로 통괄될 수 있으나 각각은 정치체의 차이(봉건왕조, 부족국가, 사회주의국가), 정책결정자의 인종적 차이(한족, 만주족), 그리고 이념적 차이(중화사상, 비중국화된 수렵문화, 맑시즘)에서 보여지듯 상호 이질적인 주체였던 것이다(Feuerwerker 1972, 4).

그동안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해 중국의 안보정책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중국의 군사안보행태는 동아시아의 세력관계의 변화 및 그로부터 초래된 안보위협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한다(Whiting 1975; Ng-Quinn 1984; Tow 1994; Roy 1998). 그러나, 현실주의적 접근중 그 연구범위를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에 국한시킨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그와 같은 연구들도 대부분 한국전쟁에 그 분석의 초점을 맞추거나(Whiting 1960) 타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과 한국전쟁을 비교하는 데 그침으로써(Gurtov and Hwang 1980; Christensen 1992/ 1996)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사례들간의 비교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논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우선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이론적 분석도구인 신현실주의 이론의 구체적 설명논리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이론적 규준을 통해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한다. 사례의 범위는 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의 개입으로 한정하며, 1636년 개입은 1627년 개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략할 것이다.[2]

---

1) 본 연구가 지향하는 외교사의 정치학적 연구와 동일사례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의 특성 및 차이에 대해서는 Levy 1997, 22-33 참조, 리비에 따르면, 양자의 차이는 이론의 사용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식적으로 이론적 개념 및 모형에 중요성을 두는가하는 수준의 차이이다. "관찰의 이론의존적 성격"으로 인해 어떠한 역사적 접근이라도 연구자의 의식여부를 떠나 이미 이론적 분석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1592년 이후로 한정한 주요이유는 연구전략상의 문제였다. 본 논문이 비록 이론검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동시기 사례들은 신현실주의이론을 검증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명청시기가 서구 국제정치의 개념과 상이한 관념적 조공관계의 완성 시기라고 한다면, 동시기 발생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은 신현실주의 이론의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례(a least likely case)"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명청시기에 동아시아 조공체제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해종 1966, 34-37 참조.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례"를 통한 이론검증에 관해서는 Levy 2002, 143-45 참조.

II. 신현실주의 분석모형의 설정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해 한국가의 개별안보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인 분석모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와 같은 분석모형은 체제 수준 및 단위 수준의 변인들을 포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월츠가 명확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제정치의 무정부성(anarchy)과 국가간 세력배분(distribution of power)이라는 체제수준의 변인만으로 개별국가의 모든 안보행태를 설명하려는 것은 마치 중력이론 하나만으로 낙엽의 낙하방향을 예측하려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뒤집어 놓은 환원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Waltz 1976, 72/ 122-123). 다시 말해, 개별국가의 행동은 체제 혹은 단위 수준의 어느 일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Waltz 1986, 328).

이런 맥락에서 신현실주의 연구프로그램내의 각종 이론들은 개별 국가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중핵을 고수하면서도 단위수준의 변인을 인과모형에 도입하고 있다.[3] 즉, 이들 연구는 체제수준의 세력변인 뿐만 아니라 단위수준의 변인들에도 분석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간결한 체제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1) 국가간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이슈의 정치화, 그리고 국제제도의 역할을 이론화과정에 도입한 연구들(Keohane 1977; 1989),[4] 2) 국가간 의사소통의 양상 및 그에 따른 정책결정의 변화과정을 게임이론으로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Snyder and Diesing 1977; Oye 1986, 1-24), 그리고 3) 인식개념을 도입해 물질적 세력관계가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Jervis 1976; Walt 1987; Van Evera 1999)은 모두 구조적 신현실주의 이론을 보완해주는 연구라 할 수 있는 것이다.[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을 설명할 구체적 분석모형 속에 1) 체제수준의 세력배분의 변화,[6] 2) 단위수준의 정치화된 이슈들, 그리고 3) 정책결정자의 위협인식 등을 포함시킬 것이다. 물론, 월츠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론의 설명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체제수준

---

3) 라카토스(Imre Lakatos)에 따르면, 연구프로그램이란 최초 제기된 원이론과 그것의 설명력 제고를 위해 각종의 보조가설들로 보정된 후이론으로 구성되는 동종 이론들의 연속체(series of theories)이다. 동일한 연구프로그램상의 이론들은 원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프로그램의 "중핵(hard core)"은 고수하되 "외연(protective belt)"을 변화시켜 이론적 진보를 도모한다. Lakatos 1982, 132. 연구프로그램 개념을 통해 각 국제관계이론을 평가하고 정리한 최근 문헌으로는 Elman and Elman 2003 참조.

4) 커해인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제도주의가 국제정치의 무정부성, 국가중심성, 합목적성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복형제(half-sibling)"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양자가 과연 동일한 연구프로그램내의 이론인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수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Keohane 2003, 80-81/ 98).

5) 월츠와 커해인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이 신현실주의 이론의 설명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단위수준의 연구라는데 동의한다. 이에 대해 Waltz 1986, 331; Waltz 1997, 916; Keohane 1989, 47-4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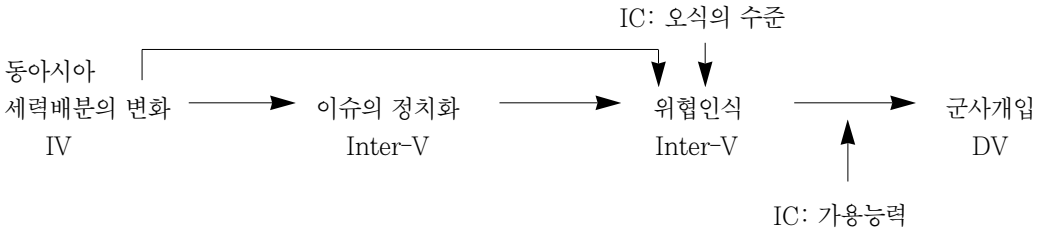
6) 본 논문은 세력배분의 변화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붕괴인가 아니면 패권국가로부터 도전국가로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인가의 문제는 판단내리지 않는다. 양 이론이 비록 세력변인으로부터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나, 세력변인을 핵심적 독립변인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디치코(Joathan DiCicco)와 리비는 심지어 양 이론을 상이한 연구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양이론 모두 세력변인을 핵심적 전제로 가정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DiCicco and Levy 2003, 110-111).

과 단위수준을 단순히 조합하는 것은 신현실주의 이론의 간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Waltz 1979, 65; Waltz 1986, 330). 즉,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간 단순조합은 이상사례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적(ad hoc) 수정에 불과하며, 그 결과 신현실주의 연구프로그램의 이론보정 과정은 퇴행적일 수 있는 것이다(Vasquez 1997, 899-912). 이런 의미에서 구체적 인과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변인들이 갖는 성격 및 그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다면, 본 연구의 인과모형은 동아시아의 세력변화를 독립변인으로, 종속변인은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으로 가정할 것이다. 또한, 관련국가간 정치화된 이슈 및 중국정책결정자의 위협인식은 개입변인으로 가정할 것이다. 세력변인이 신현실주의 프로그램의 중핵이라는 차원에서 독립변인으로 전제될 수 있다면, 단위수준의 정치화된 이슈 및 위협인식은 그러한 세력변인과 종속변인을 매개하는 개입변인이 될 수 있다.[7] 즉, 동아시아 세력배분의 변화는 국가간 상호작용과정에서 국가이익이 충돌하는 정치적 이슈를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중국의 정책결정자는 위협인식을 갖게 되며 그 대응으로 중국지도부는 대한반도 군사개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소위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표현되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인과모형에서 "상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군사개입을 설명하는 변인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라 그러한 전략적 가치가 침해되는 조건 및 상황인 것이다.

한편, 인과모형에는 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조건 역시 상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결정자의 위협인식 수준은 "오식(misperception)"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식의 수준은 주요한 초기조건으로 인과모형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8] 또한, 합목적적인 행위자는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외부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양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위기시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도 중요한 초기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9] 이상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인과모형



IV: 독립변인 Inter-V: 개입변인 DV: 종속변인 IC: 초기조건

7) 이것은 이슈 및 위협 변인이 세력변인에 내재된(endogenous) 변인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신현실주의 이론이 설명력 제고를 위해 구성주의적 인식개념을 엄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도입한다는 비판(Vasquez 1997, 904) 은 수용되기 어렵다.

8) "오식"에 대한 논의는 Snyder and Diesing 1977, 299-310; Jervis 1986, 73-76 참조.

9) 각 변인들의 개념 및 관계에 관한 일반적 설명은 Van Evera 1997, 7-15참조.

3장에서는 이와 같이 구성된 인과모형을 통해 1592년, 1627년, 1894년 및 1950년에 각각 발생하였던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을 분석한다.

Ⅲ.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사례분석

1. 동아시아 세력배분의 변화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사례에서 나타난 동아시아의 세력배분의 변화는 주로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1592년 사례의 경우 명-일본간, 1627년 사례에서는 명-후금간, 1894년 사례에서는 청-일본간, 그리고 1950년 사례의 경우 미소냉전의 도래에 따른 세력관계의 재편이 그것이었다.

우선, 1592년의 사례에서 명의 상대적 쇠퇴와 통일일본의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변화를 유발했던 주요한 동인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16세기 중엽 이후 명의 정치체제는 황제(신종)의 실정, 관료의 부패 및 파벌, 재정의 파탄, 자연재해, 반란 및 외적의 침입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Fairbank, Reischauer and Craig 1973, 208). 특히, 국내적으로 발생한 다수의 반란은 명조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예를 들어, 1560년부터 1600년까지 중국내 각 도시에서 주로 세금징수에 항의하는 수십 차례의 대규모 반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Struve 1979, 312-13). 뿐만 아니라, 1582년 재상 장거정(張居正)의 사망 이후 신종의 연이은 실정은 중앙권력체제의 난맥상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하였다(Huang 1981, 75-76). 특히, 이러한 상황속에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명의 세력약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북로남왜(北虜南倭)로 표현되는 대외적 위협은 내부적으로 명조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이다(최소자 1997, 60).

한편, 이러한 명의 상황과는 달리 동시기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특히, 1591년 토요토미 히데요시(1536-1598)에 의한 전국통일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지역강국으로 부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는 전 권력자인 오다 노부나가(1534-82)의 통일정책을 계승해서 도량형의 통일, 토지조사, 무기환수 및 천황가의 위신 강화 등을 기반으로 일본의 통일을 완수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히데요시는 "중앙화된 봉건체제(centralized feudalism)"로 표현되는 전통적 다이묘 체제를 통일의 주요기제로 사용하였다. 즉, 주로 포르투갈산 근대 무기로 무장한 소수의 핵심적 다이묘들이 전국통일의 핵심적 주체로 등장하였던 것이다(Fairbank 외 1973, 392-99).

명은 이와 같은 일본의 급속한 부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591년 일본이 한반도를 통해 중국대륙으로 진출할 것이란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자 명은 조선과 유구 등을 이용해 대일본 방어전쟁을 계획하기도 하였다(선조실록 25년 6월 甲寅條).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부상에 대한 명의 위협인식이 그만큼 심대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1627년 후금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은 소위 "화이변태(華夷變態)"로 표현되는 17세기 초 동아시아의 세력관계 변화 속에서 발생하였다.[10] 사실, 화이변태는 중화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중국적 세계질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간 세력배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명의 세력약화는 16세기 중엽부터 대내외적으로 시작되었는데, 16세기 말엽부터 더욱 가속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동림당(東林黨)세력을 둘러싼 엘리트들간 파벌투쟁 및 은의 대규모 국내유입은 정치경제체제를 붕괴시키는 기화제가 되었다(Atwell 1988, 588-89). 뿐만 아니라, 조일전쟁시기 대규모 병력의 조선파병은 명의 재정 및 방어체계를 와해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Clark 1998, 298).

반면, 16세기 후반부터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부상한 여진세력은 명의 세력약화를 기회로 요동지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명은 분할지배 전략을 이용해 여진의 각 부족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은 1583년부터 주변부족을 병합하기 시작해 1608년 명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1616년 후금을 건립함으로써 명에 대항하는 국가체제를 형성하였다(한명기 1999, 226-27). 특히, 이 과정에서 후금의 군사체제인 팔기군은 그 편제의 효율성으로 인해 전쟁시 병력의 신속한 동원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후금의 세력확장에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다(Huang 1988, 576).

명은 이러한 후금의 급속한 성장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1618년 여진이 지정학적 요충지인 무순을 점령하자 명의 대후금 위협인식은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명은 조선과 연합하여 대후금 전쟁(薩爾滸 전투: 1619.3)을 개시하였지만 후금의 우월한 팔기군에 의해 패하고 1622년까지 심양, 요양 및 광녕이 차례로 후금의 세력권에 들어가면서 요동지역의 세력관계는 명으로부터 후금으로 급속히 전이되기 시작하였다(광해군일기 13년 9월 戊申條; Huang 1998, 579; 王薇 외 2002, 206).

한편, 후금에게는 요동에서의 세력변화가 비록 자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지만 명과 조선의 대후금 동맹관계는 매우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당시 후금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그와 같은 외부의 위협을 더욱 증폭시키는 대내적 요인이 되었다. 1622년 이후 대규모 기근으로 인해 요동지역에서 한인반란 및 도망이 빈발하자 그들의 기술 및 노동력에 의존해 경제체제를 농경방식으로 변모하려던 후금의 의도는 좌절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명에 의해 후금지역의 한인반란이 기도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위협세력의 대내외적 연계는 후금의 위협인식을 극대화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Li 2001, 48; 김종원 1978, 77-89).

셋째, 1894년 청의 한반도 군사개입은 일본의 부상과 청의 세력약화라는 맥락속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이 시기 청의 세력약화는 대내외적인 변인들이 상호 결합되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사례와 다르지 않았으나, 소위 "서양의 충격"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부가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상이하였다. 우선, 대내적으로 청 군사력의 근간이 되었던 팔기군 체제는 18세기말 건륭제(乾隆帝) 시기부터 급속히 약화되었다. 당시 감행된 일련의 국경정벌전쟁중에 물자 및 비용에 대한 광범위한

10) 화이변태에 관해서는 岸本美緒, 宮嶋博史 2003, 180-81참조.

횡령이 만연하고 그로인해 일반병사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면서 팔기군체제의 효율성은 와해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Fairbank 외 1973, 238-40).

또한, 18세기부터 급속하게 증가한 인구 역시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청의 인구는 1741년 1억 4천만에서 1840년 4억 천만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경작토지의 부족이 초래되었으며 그 결과 19세기 중엽까지 전체인구의 삼분의 일이 기아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신승하 2000, 49-50).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각종 반란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동인이 되었는데 특히 그 규모 및 성격상 태평천국의 난(1851-64)은 청조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규모 반란이었다. 즉, "반청복명(反淸復明)"의 정치적 구호에서 드러나듯 태평천국 세력은 자신들의 건립기반에 이미 청조체제의 와해를 전제했던 것이다(Scalapino 1985, 14; Paine 2003, 25-26).

이러한 국내적 혼란 속에서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한 서양의 충격은 청조 세력약화의 결정적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였다. 1840년과 1860년의 제 1, 2차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은 홍콩 등을 영국에 할양하고 항구를 추가 개방당하는 등 "3천년 역사 이래 미증유의 일(三千年未有之禍)"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신승하 외 2000, 40). 청조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중체서용(中體西用)을 관념적 기반으로 한 양무운동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1885년의 중불전쟁 패배로 인해 베트남 및 기타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한 전통적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Fairbank 외 1973, 603-606).

한편, "중국적 세계질서"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근대일본의 급속한 부상은 주목할 만한 상황전개였다. 특히, 1868년 1월 초슈 및 쓰시마번 등의 일부지방세력과 신진무사계급이 연합해 천황중심의 근대국가건설을 선언한 메이지유신은 근대국가로서 일본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메이지 세력은 1872년 폐번치현(廢藩置縣)을 통한 근대적 행정구역의 설치, 1873년 근대적 국민의무교육의 도입, 1882년 일본은행의 창설, 1889년 헌법의 제정, 그리고 1890년 의회의 창설 등을 추진함으로써 일본의 근대국가화를 신속하게 추진하였다(Paine 2003, 87-88). 또한, 군사부문에 있어서도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중심으로 해군력의 급속한 증강을 도모하였으며, 그 결과 청일전쟁 직전 일본의 해군력은 청의 해군력을 상대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최석완 1999, 215-36). 물론, 청은 이러한 일본의 급속한 부상을 장기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이홍장(李鴻章)은 이미 1870년대 초반 일본의 급성장을 우려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향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세력확장 및 그로 인한 대중국 위협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이다(Teng and Fairbank 1970, 119; 李文忠公全書: 譯署函稿, 卷4, 論日本派使入朝鮮).

넷째, 1950년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아시아의 세력관계 변화는 명확히 관찰될 수 있다. 특히, 2차 대전 종전후 미소 냉전체제의 시작은 동아시아 세력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사실, 냉전은 그 지역적 기원을 유럽에 두고 있었다. 미국은 종전후 영국세력의 약화로 인해 초래된 세력공백으로부터 소련의 세력확대를 제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소위 트루만 독트린(1947) 및 그 실체적 구상물인 마셜플랜 등을 통해 서독, 그리스, 터키, 그리고 이란 등의 지역을 거점으로 대소련 봉쇄정책을 추진하였다(Christensen 1996, 32-39). 이러한 동서냉

전의 구도는 곧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이되었는데 미국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역내 세력공백으로부터 소련의 세력확대를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tueck 2002, 16-18). 반면, 소련의 입장에서도 한반도는 유럽의 폴란드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종결될 즈음 이미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Morgenthau 1993, 295; Stueck 1997, 16; 박명림 1996, 76-7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종전후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의 분할점령은 미소 세력의 균형점이 한반도의 38선을 접점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김구, 조만식 등의 지역 민족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이승만, 김일성 등의 신진 정치세력을 후원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대리정권에 의한 세력균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박명림 1996, 92-93; 김기조 2001, 24-27).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재편에 대해 신생 중국 역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모택동(毛澤東)은 동서냉전의 구도를 소련을 위시로 한 "신민주주의 진영"과 미국을 위시로 한 "반동진영"으로 구분하면서 중국은 전자에 협력해야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던 것이다(毛澤東 1971, 1154-56). 사실, 이와 같은 이념적 동서획분의 근저에는 새로운 동아시아 세력관계에 대한 중국의 현실주의적 우려가 내포되어 있었다. 즉, 중국으로서는 전후 미국의 대일본 지원으로 인한 일본의 재부상 가능성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역내 세력확장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던 것이다(Whiting 1960, 34-37). 물론, 중국은 소련의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1949년 6월 "대소일변도" 정책을 선언함으로써 미국과의 대립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2. 단위수준에서 이슈의 정치화

상술한 동아시아의 세력변화가 체제수준의 변인이라면 정치화된 이슈들은 단위수준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치화된 이슈들은 체제수준의 변인보다 그 실체성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결정자들의 위협인식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1592년 사례의 경우 왜구문제는 조일전쟁 직전까지 명-일 관계를 긴장시킨 주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왜구문제는 명의 건국시기부터 산동, 절강 및 복건과 같은 연해지구의 안보문제와 연계되면서 명에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해상무역에 근거하는 왜구는 농경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명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명조는 왜구의 통제를 최우선의 안보목표로 상정하였다(Huang 1981, 163; 王薇 외 2002, 144).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구의 출몰은 16세기 중엽 그 정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특히, 왜구는 중국내 해상들과 연계해 그들이 제공한 무기로 무장함으로써 명의 연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하였다(명종실록 10년 6월 己卯條).

결국 명은 척계광(戚繼光) 등의 주도하에 왜구진압에 성공하였으나 왜구문제는 명-일관계 및

조-명관계에 민감한 현안이 되었다. 명조는 당시 내전으로 인해 왜구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일본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그결과 명-일간 공식관계는 1557년부터 1592년 조일전쟁의 발발시기까지 단절되기도 하였다(Struve, 1993, 115). 이러한 측면에서 명이 1592년 일본의 한반도 침공을 최초 왜구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은 왜구에 대한 명의 위협인식이 샘대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明神宗實錄 24년 4월 己未條; 최소자 1997, 25).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도 왜구문제에 대한 명의 강경책은 결코 환영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명의 강경책은 왜구를 통한 해상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후원하는 일본내 정치세력들에게는 불만족스런 상황전개였던 것이다.[11] 조선과 명의 관계 역시 왜구문제로 인해 민감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명은 조선을 통해 왜구진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조선은 그로인해 초래될 대일관계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에 명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명종실록 12년 4월 壬寅條).

둘째, 1627년의 사례의 경우 정치화된 주요한 이슈는 주로 명-후금의 대립구도 속에서 조선의 외교행태와 연관된 문제들이었다. 우선, 조선 인조정권의 친명정책은 조선-후금의 관계를 매우 경색되게 만든 핵심적 문제였다. 주지하듯, 전 정권인 광해군의 대후금 정책은 전형적인 전략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었다. 광해군은 명-후금의 세력변화속에서 전통적 친명정책으로부터 탈피, 후금과의 전향적 관계를 모색하였다(한명기 1999, 229-44). 예를 들어, 광해군은 1619년 살리호 전투에 앞서 명이 요청한 원군파병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으며 결국 파병이 불가피해지자 사령관인 강홍립에게 소극적 전투를 지시하는 등 후금과의 관계에서 있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광해군일기 10년 5월 壬辰條; 11년 2월 丁巳條).

그러나 광해군의 전략적 외교정책은 당시 서인세력에 의해 소위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위배한 행동으로 간주되면서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승정원일기, 인조 1년 3월 甲辰條; 한명기 1999, 308). 결국 서인세력은 광해군의 "폐모살제(廢母殺弟)" 전력 및 명에 대한 "불충함"을 구실로 1623년 3월 12일 쿠테타(仁祖反正)에 성공함으로써 친명정책으로의 회귀를 신 정권의 정당성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후금이 이러한 인조정권의 친명정책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명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후금으로서는 지정학적으로 배후에 위치한 조선의 친명정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滿文老檔, 太祖 72, 天命 11 8月1日條; 김종원 1978, 88). 1627년 무력개입의 첫 번째 이유로 조선의 대후금 적대정책을 적시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후금의 위협의식을 단적으로 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인조실록 5년 4월 丁酉條).

한편, 모문룡(毛文龍) 문제는 조선과 후금의 관계를 극도로 경색되게 만드는 또다른 정치적 이슈였다. 명나라 장수인 모문룡의 군대는 1621년 후금이 점령하고 있던 요동의 진강을 공격한후 퇴각해 평안도 철산해안에 위치한 가도에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모문룡 군은 가도를 근거지로 요

11) 이런 측면에서 1592년 히데요시의 가도입명(假道入明)의 논리 속에는 중국과의 무역관계의 단절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王薇 외 2002, 146-49).

동의 후금지역에 대한 공격과 퇴각을 반복하기 시작하였다(광해군일기 13년 7월 乙丑條). 이와 같은 모문룡 군의 군사행동은 비록 후금을 패퇴시킬만한 수준은 안됐지만 요동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후금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1623년 조선에서 인조정권이 등장하고 친명정책의 중간매개체로서 모문룡 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되자 후금의 위협인식은 더욱 증폭되었다(李鴻彬 1988, 48). 모문룡문제 역시 1627년 군사침공의 핵심적 구실로 거론되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 해준다고 볼 수 있다(인조실록 5년 4월 丁酉條; 淸太宗實錄 1년 3월 4일조).

한편, 누루하치의 사후 왕권을 계승한 홍태극(洪太極: 청태종)의 매파적 성향 역시 조선으로부터의 위협인식을 증폭시키는 또다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홍태극은 누르하치의 유화적 대조선 정책과는 달리 조선의 이중적인 후금정책을 비난하면서 무력을 통한 조선의 굴복을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왕권을 계승한 후 4개월 만에 조선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했던 것이다(김종원 1978, 60).

셋째, 1894년 사례의 경우 대만, 유구 및 조선 지역에 대한 일본의 세력확장 기도는 청일관계를 긴장시키는 주요한 정치적 이슈였다. 우선 일본은 1872년 중일양국과 동시에 조공관계를 유지해 왔던 유구의 외교권을 선점하고, 난파한 유구인이 대만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1874년 대만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세력확장을 기도하였다(Fairbank 1973, 511). 당시 청은 일본이 유구 및 대만지역을 넘어 조선으로까지 그 세력범위를 확대할 것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하였는데(고종실록 16년 7월 辛巳條), 실제로 일본은 1879년 유구를 병합하고 조선으로 그 전략적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조-일간 첫 조약인 강화도 조약(1876.2.26)의 제1항에서 "조선은 자주독립국"임을 명시한 것은 이와 같은 일본의 세력확장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Hsu 1980, 103).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청일전쟁 직전까지 조선내에서 발생하였던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및 동학운동(1894) 등 일련의 사건은 청-일 세력이 충돌하는 단위수준의 접점이 되었다. 1882년 6월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발발하자 청은 즉각적인 군사개입을 통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화하기 시작하였다(권혁수 2000, 93; Paine 2003, 54) 반면, 일본은 임오군란 이후 강화된 청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조선내 개혁파들을 지원해 1884년 12월 3일 친일쿠테타(갑신정변)를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조선문제를 둘러싼 청일간 긴장관계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Hsu 1980, 186-92; 고종실록 21년 10월 戊子條).

갑신정변 이후 10여년에 걸친 청의 강력한 대조선 개입정책으로 인해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으나(Hsu 1980, 105) 일본은 동학운동을 기점으로 조선에 대한 세력확장을 재차 기도하였다. 1860년 유불선 사상을 기반으로 태동한 동학세력은 1893년 "척왜양이 제폭구민(斥倭洋夷 除暴救民)"을 기치로 반정부 운동에 돌입하게 되었다(성황용 1992, 216). 이에 청은 조선정부의 요청을 구실로 즉각적인 군사개입을 감행, 동학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국제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 역시 '조선에 일방의 군대주둔시 타방 역시 군대를 주둔할 수 있다'는 천진조약(1885.4.18)에 의거 신속하게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청일간 대규모 군사대립이 현실화 되

었다(권혁수 2000, 284-87; 고종실록31년 5월 丁丑條).

사실, 당시 청 지도부는 일본의 한반도 군사개입을 즉각적이고 심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즉, 이홍장은 일본의 군사행동을 조약에 따른 형식적인 행동으로 "오식"하기도 하였던 것이다(Mannix 1913, 114-15). 따라서, 이홍장은 기타 열강의 중재를 요청하고 그를 통해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미 청에 필적하는 군사력을 확보한 일본으로서는 청의 외교적 해결제의를 묵살함으로써, 청정부는 불가피하게 1894년 8월 1일 대일개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1950년 사례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승인문제 및 대만문제는 중-미 양국관계를 경색시키는 주요한 정치적 이슈였다. 우선, 1948년 후반 국공내전의 전세가 공산당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대중 승인문제는 중미간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등장하였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입장은 미국에 비해 일관적이었다. 즉, 중국공산당은 미국이 국민당과의 관계단절을 이루기만 하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암시하였던 것이다(Chen 1994, 41). 공산당은 국민당 잔존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합리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었다(Gurtov and Hwang 1980, 61; 毛澤東 1971, 1154-56). 그러나, 미국은 중국공산당 승인문제에 있어 모순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미국-국민당의 연계에 대한 공산당의 위협인식을 심화시켰다. 즉, 미 트루만 행정부는 중국대륙의 전세상황, 타국의 중국공산당 승인여부, 그리고 승인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전향적인 태도 등을 관계정상화의 전제로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1950년 초까지도 중국공산당 승인을 보류했던 것이다(Christensen 1996, 99, 104). 사실, 이러한 미 행정부의 행태는 친국민당 성향이 지배적이었던 의회 및 여론의 반대가 그 주요원인이었으나, 중국공산당은 트루만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이중적인 대중전략을 추구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Christensen 1996, 109-15).

한편, 이와 같은 미국의 비일관적인 대중정책은 대만문제에도 투영됨으로써 중국지도부의 대미위협인식을 극대화시켰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50년 1월 5일 소위 애치슨 선언을 통해 대만을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에서 제외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 직후인 27일 대만해협을 전격적으로 봉쇄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중국지도부는 이러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대중 적대정책의 결정적 증거로 간주함으로써 이후 미국의 위협에 대항할 것임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人民日報 1950/06/29).

3. 개입

상술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세력관계의 변화, 정치화된 이슈 및 그로인한 위협인식의 증가는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을 발생시켰던 주요한 동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구체적인 개입과정에서 중국지도부는 위협수준 및 개입시 필요한 가용자원의 수준에 따라 그 구체적 대응양태를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을 구사하였다.

이와 같다면, 1592년 사례와 1950년 사례는 매우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즉, 두개의 사례에서 개입주체인 명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최초 적(각각 일본, 미국)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시기부터 분쟁해결까지 1) 탐색 및 경고, 2) 소규모의 1차 군사개입 및 관망, 3) 전면적 개입, 그리고 4) 소극적 대응양태라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1592년 사례의 경우 4월 13일 일본군의 부산포 상륙으로부터 평양성이 함락된 6월 15일까지 명의 대응은 즉각적인 군사행동이 아닌 소극적인 정보수집에 전념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명은 조선의 대일 편승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전황을 파악한다는 구실로 특사를 파견, 조선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등 전략적 사고를 취하기도 하였다(최소자 1977, 75; 선조실록 25년 5월 戊子條). 결국, 조선의 진의가 파악되고 한반도의 전략적 거점으로 간주되던 평양성이 함락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명은 구체적인 대조선 군사개입의 의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병부상서 석성(石星) 등은 조선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진공을 한반도에서 필히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이긍익, 연려실기술, 선조조고사본말; 선조실록 25년 6월 乙卯條; 최소자 1977, 68). 그 결과 조승훈이 지휘하는 3천여 규모의 명군이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압록강을 도하하고 7월 17일 평양성에서 일본군과 최초의 전투를 수행하였다(선조실록 25년 6월 戊申條; 7월 丁丑條).

그러나, 평양전투의 대패로 인해 보다 대규모 군사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동절기 압록강의 결빙을 이용한 일본군의 도하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명군의 시급한 추가개입을 요구하는 논리가 되기도 하였다(최소자 1997, 26; 선조수정실록 25년 9월 丁巳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명의 대내적 정치상황은 대규모 추가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1592년 3월 장군 발배(哱拜)가 주동한 '영하의 난'이 아직 진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으로의 대규모 파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명은 9월 1일 일본과 50일간의 잠정적 휴전에 합의함으로써 가용자원의 부족에 따른 파병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하였다(Turnbull 2002, 178). 결국, 12월 하순 영하의 난이 진압된 후 이여송이 지휘하는 대규모 원정군이 파병되었으며, 조-명 연합군은 1593년 1월 9일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평양성 탈환을 기점으로 명의 군사행동은 조일전쟁 종결시까지 소극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1월 27일 벽제전 패배이후 명의 소극적 대응은 더욱 명확해 졌는데, 일본군의 북진을 억지하려는 군사개입의 주요목적을 이룬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전은 불필요했던 것이다(한명기 1999, 42-48).

둘째, 1950년의 사례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전개과정으로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부터 전세가 변화되는 8월 중순까지 한국전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관망"이었다. 비록 인민일보 등을 통해 미국을 비판하고 북한의 대미항전을 옹호하는 일련의 사설 등이 공표되기도 하였으나(人民日報 1950/07/06) 군사개입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도 내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8월 초부터 실제 전세의 변화와 더불어 중국의 전황인식 및 구체적 대응양식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한 한-미 연합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보급선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던 것이다(Whiting 1960,

71-72). 전쟁초기 북한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승리를 낙관했던 중국에게는 이와 같은 상황변화가 결코 환영할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중국은 8월 초 소련과 보조를 맞추며 한국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대응양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人民日報 50/08/07). 그러나 중소의 평화해결안이 미국에 의해 거부되고 오히려 미국대사인 오스틴(Warren Austin)에 의해 UN군의 목적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완전한 승리라고 명시되자 중국의 위협인식은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8월 25일 맥아더는 "대만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발언하고, 9월 1일 트루만이 중국의 한국전 개입을 공개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중국의 대미 위협감은 더욱 증가하기 시작하였다(Whiting 1960, 96-98).

상황이 이와 같이 급변하게 되자 중국은 점차 한반도에 대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시작하였다. 주은래(周恩來)는 미국이 중국으로 확전을 기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아울러 모택동은 9월말까지 동북변방군의 전쟁준비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32-34; Chen 1994, 148). 특히, 9월 15일 UN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10월 초 미군의 38선 월경이 임박하자 중국은 실질적인 군사개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즉, 주은래는 10월 3일 인도대사 파니카(Panikkar)를 통해 미군의 38선 월경시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공표하였던 것이다(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43-44). 그러나, 미군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10월 7일 38선을 월경, 북진하자 중국지도부는 10월 13일 군사개입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12)]

한편, 중국지도부는 군사개입을 하되그로 인해 초래될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나타내었다. 우선, 소련으로부터 공군력의 지원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정규군이 아닌 인민지원군의 형태로 파병군대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미국과의 전면전을 방지하려 하였다(Goncharov 외 1993, 176-79). 뿐만 아니라, 10월 25일 남한군과의 최초전투 이후 11월 26일까지 거의 한달동안 모든 전선에서 공격을 중단하고 미국의 대응을 관망하는 전략적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Christensen 1996, 154-56; 170-73). 또한, 1951년 1월 4일 서울을 재점령하는데 성공한 이후 중국은 대응전략을 방어전략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확전에 따른 추가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대응양태의 변화는 1593년 1월 벽제전 이후 명군의 전술이 소극적으로 변화한 것과 같이 철저한 합리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1627년 및 1894년의 사례의 경우는 1592년 및 1950년 사례와 그 전개과정상 몇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두 사례 모두 행위자(후금, 청)의 합목적적 사고에 근거한다는 측면에서 1592년 및 1950년 사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1627년 사례를 보면, 동년 1월 13일 누루하치의 차자인 아민(阿敏)이 지휘하는 후금군은 압록강을 도하, 다음날 의주를 점령하였다. 이후 신속한 남진을 통해 1월 23일 평양을 점령하고 2월 7일 서울북방 100킬로미터 떨어진 평산까지 남하하였다. 후금군은 평산에 주둔한 상태에서 당

12) 周恩來. "抗美援朝保衛和平."『周恩來選集』(http://www.people.com.cn/GB/shizheng/252/7619/7646/2540425.html) (검색일: 2005. 11.8.) 미국은 당시 중국의 경고를 "허풍(bluffing)"으로 간주하는 "오식"을 범하였다(Chen 1994, 169).

시 강화도로 피난한 인조정권과의 강화협상을 추구하여 3월 3일 조선과 후금간에 강화회담이 성립되었다(전사편찬연구소 1987, 48-112). 이 과정에서 보여지듯, 후금군의 군사행동은 매우 단기적이었으며 또한 신속하게 수행되었다. 즉, 후금군은 1월 14일 의주를 점령한 시점부터 이미 차사를 보내 조선이 명과의 관계단절만을 약속한다면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던 것이다(인조실록 5년 1월 丁酉條; 4월 丁酉條)

이와 같은 상황전개는 대조선 군사개입에 대한 후금지도부의 전략적 사고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향후 명과의 전면전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조선 군사개입의 장기화는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후금은 신속한 군사행동을 통해 그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명의 경제봉쇄 등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경제관계를 유지하던 조선과 전면적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전사편찬연구소 1987, 112-13; 한명기 1999, 239). 명과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고 또한 사회경제적 난관이 완화되는 시점인 1636년에 대규모의 2차 조선침공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894년의 구체적 개입과정 역시 청지도부의 전략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1894년 6월 3일 동학운동 진압에 대한 조선의 요청이 있자 청은 즉각적으로 군사개입을 하였다. 청으로서는 1884년 갑신정변이후 강력한 개입정책으로 조선의 실권을 장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개입을 통한 조선문제 해결은 매우 합리적인 대응이었다. 또한, 6월 9일 그 개입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던 일본의 대규모 군사개입이 현실화되자 이홍장은 영국과 러시아 등의 중재를 요청하고 그를 통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외교적 해결노력은 일본과의 전면전으로 인해 초래될 막대한 전쟁비용을 방지하면서도 조선에 대한 종주권은 고수하려는 전략적 선택의 일환이었다. 즉, 대일전쟁시 승리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대조선 종주권의 상실과 중국본토로의 안보위협을 차단하려는 합리적 대응이었던 것이다(권혁수 2000, 311-20; Paine 2003, 117). 그러나, 이미 대청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한 일본에 의해 청의 외교적 해결 시도는 좌절되면서 8월 1일 청일전쟁은 공식적으로 개전되었다.

Ⅳ. 결 론

이상에서 본 논문은 지난 5세기 간 발생하였던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원인 및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현실주의 이론을 그 분석모형으로 이용하여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을 1)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변화(체제수준), 2) 정치화된 이슈(단위수준), 그리고 그로 인한 3) 중국지도부의 위협인식 및 합리적 대응(정책결정수준)이란 3가지 차원의 맥락에서 설명하였다.

우선, 각 사례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변화는 각각 명-일간 세력변화(1592), 명-후금간 세력변화(1627), 청-일간 세력변화(1894), 그리고 미소 양극체제로의 전화(1950)라고 요약될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은 구조적 세력변화 속에서 왜구문제(1592), 모문룡 및 조선의 대후금 균형

정책(1627), 조선의 내정불안(1894), 그리고 대중승인문제 및 대만문제(1950)등과 같은 문제들이 정치화되었다. 셋째, 이로 인해 중국지도부의 위협인식이 증대되는 상황속에서 위협감을 극대화시키는 상황이 한반도 지역에 전개되고 그 결과 중국의 군사개입이 결정되었다. 즉, 일본군의 평양점령(1592년), 명-조선의 연계(1627), 동학의 진압구실로 인한 일본군의 조선진주(1894), 그리고 미군의 38선 월경(1950)이 그 사례들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지도부는 개입에 따르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그 이득은 극대화하는 전략적 대응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전면적 개입에 의한 억지 성공 후 소극적인 전술운용(1592, 1950), 단기적인 개입(1627), 그리고 외교적 해결시도(1894) 등이 그러한 사례였다.

한편,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경험적,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향후 중국이 상기사례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군사개입의 여부에 관한 시사점이다. 본 연구의 설명논리에 기반 한다면,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때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가능성 역시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핵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북공격을 감행하는 경우 역대 한반도 위기시 중국의 대응양태는 참고할 만한 준거점이 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또한 외교적 해결에 대한 중미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대북군사행동과 그에 대응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자체를 극소화시키는 주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둘째, 비록 본 논문의 목적이 이론검증이 아니지만, 신현실주의 이론의 설명력을 상당히 검증할 수 있는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역대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사례는 그것의 역사적, 이념적 맥락에서 신현실주의 이론의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례"라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다면, 최근 신현실주의 이론의 주요한 경쟁이론이라 할 수 있는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 접근은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사례를 설명하는 대항적 설명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존스톤(Alastair Iain Johnston)이 주장하는 중국전략문화의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 개념은 역대 한반도 군사개입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한 분석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13] 과연 그렇다면, 그러한 전략문화 접근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비해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일사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향후 검토되어야 할 흥미로운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13) 신현실주의와 전략문화 접근의 비교평가는 Glenn, Howlett, and Poore(eds.) 2004 참조. "적극적 방어" 개념은 Johnston 1996, 238-239참조. 전략문화 접근의 비간결성 및 동어반복성에 대한 방법론 비판은 박홍서 2005, 154-157 참조.

참 고 문 헌

『고종실록』
『광해군일기』
『명종실록』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승정원일기』
『인조실록』
권혁수. 2000.『19세기말 한중관계사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김기조. 2001. "한국전쟁의 근인이된 열강에 의한 한반도 분할과정." 박두복 편.『한국전쟁과 중국』, 17-46. 서울: 백산.
김종원. 1978. "정묘호란시의 후금의 출병동기."『동양사학』12, 55-93.
박명림. 1996.『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서울: 나남.
박홍서. 2005. "중국외교안보연구의 구름과 시계 모형."『비교민주주의연구』제1집 2호, 141-168.
성황용. 1992.『동양외교사』. 서울: 명지사.
신승하. 2000.『중국근대사』. 서울: 대명출판사.
신승하, 유장근, 장의식. 2000.『19세기 중국사회』. 서울: 신서원.
이긍익.『연려실기술』.제 16권. 선조조 고사본말. (http://www.minchu.or.kr내 검색). (검색일: 2005. 11. 07)
전사편찬연구소. 1987.『병자호란사』. 서울: 전사편찬연구소.
전해종. 1966. "한중조공관계고-한중관계사의 조감(鳥瞰)을 위한 도론(導論)."『동양사학』1, 10-41.
최석완. 1999. "일본정부의 동아시아질서 재편정책과 청일전쟁."『동양사학』65, 213-248.
최소자. 1977. "임진왜란시 명의 파병에 관한 논고."『동양사학』11, 63-97.
최소자. 1997.『명청시대 한중관계사 연구』.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한명기. 1999.『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편. 2002.『한국전쟁과 중국 I』. 대전.
Atwell, William. 1988. "The T' ai-chi' ang, T' ien-ch' i, and Ch' ung-chen reigns, 1620-1644." Frederic W. Moted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the Ming Dynasty 1368-1644. Part 1, 585-64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en, Jian. 1994.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Christensen, Thomas. 1992. "Threats, Assurances, and the Last Chance for Peace: The Lessons of Mao's Korean War Telegrams." *International Security* 17, No. 1, 122-154.

Christensen, Thomas. 1996. *Useful 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 and Sino-American Conflict, 1947-195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Clark, Donald N. 1998.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under the Ming." Denis Twitchett and Frederick W. Mot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8. The Ming Dynasty, 1368-1644. The Ming Dynasty 1368-1644. Part 2, 272-30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Cicco, Jonathan and Jack Levy. 2003. "The Power Transition Research Program: A Lakatosian Analysis." 109-157. Elaman, Colin and Miriam Fendius Elman, eds. *Progr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ppraising the Field*. Cambridge: MIT Press.

Elaman, Colin and Miriam Fendius Elman, eds. 2003. *Progr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ppraising the Field*. Cambridge: MIT Press.

Fairbank, John K., Edwin O. Reischauer and Albert M. Craig. 1973. *East Asia: tradition and ransform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Feuerwerker, Albert. 1972. "Chinese History and the Foreign Relations of Contemporary China." *China in the World Today Ana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402 (July), 1-14.

Glenn, John, Darryl Howlett, and Stuart Poore, eds. 2004. *Neorealism Versus Strategic Culture*. Burlington: Ashagte.

Goncharov, Sergei N., John W. Lewis and Xue Litai. 1993.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d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Gurtov, Melvin and Byong-Moo Hwang. 1980. *China under Threat: The Politics of Strategy and Diplom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Hsu, Immanuel C.Y. 1980. "Late Ch'ing Foreign Relations." John K, Fairbank and Kwang-Ching Liu,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1, part 2, 70-141.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ang, Ray. 1981. *1587 A Year of No Significance: the Ming dynasty in Decline*.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Huang, Ray. 1988. "The Lung-Ching and Wan-li Reigns 1567-1620." Frederick W. Mote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The Ming Dynasty, 1368-1644 Part I, 511-58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Jervis, Robert. 1976.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Jervis, Robert. 1986. "From Balance to Concert: A Study of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Kenneth A.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Johnston, Alastir Iain. 1996. "Cultural Realism and Strategy in Maoist China."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216-268.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Keohane, Robert O. 1986. "Realism, Neorealism and the Study of World Politics."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1-2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Keohane, Robert O. 1989.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London: Westview Press.

Keohane, Robert O. 2003. "Institutional Theory as a Research Program." Elaman, Colin and Miriam Fendius Elman, eds. *Progr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ppraising the Field*, 71-107. Cambridge: MIT Press.

Lakatos, Imre. 1982.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mre Lakatos and Alan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91-19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vy, Jack S. 1997. "Too Important to Leave to the Other: History and Political Science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1(Summer), 22-33.

Levy, Jack S. 2002. "Qualitative Methods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ank P. Harvey and Michael Brecher, eds. *Evaluating Methodology in International Studies*, 131-160. Ann Arbor: the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Li, Gertraude Roth. 2001. "State Building before 1644."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9, Part 1, The Ch'ing Empire to 1800, 9-7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nnix, William Francis. ed. 1913. *Memories of Li Hung Cha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Mogenthau, Hans. 1993.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revised by Thompson, Kenneth W. New York: McGraw-Hill, Inc.

Ng-Quinn, Michael. 1983. "The Analytic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7, No. 2 (June), 203-224.

Oye, Kenneth A. 1986. "Explain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1-24. in Kenneth A.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aine, S.C.M. 2003.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erceptions, Power, and Prim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y, Denny. 1998. *China's Foreign Relations*.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Scalapino, Robert A. 1985. *Modern China and its Revolutionary Process*.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nyder, Glenn H. and Paul Diesing. 1977. *Conflict among Nations: Bargaining, Decision Making, and System Structure in International Cri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tueck, William. 1997. *The Korean War-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tueck, William. 2002. *Rethingking the Korean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truve, Lynn A. 1979. "Urban Riots and Disturbances." Jonathan D. Spence and John E. Wills, Jr., ed. *From Ming to Ch'ing: Conquest, Region, and Continuity in Seventeenth-Century Chin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Struve, Lynn A. ed. 1993. V*oices from the Ming-Qing Cataclysm: China in Tigers' Jaw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Teng,Ssu-yu and John K. Fairbank. 1970. *China's Response to the West: a Documentary Survey 1839-1923*. New York: Atheneum.

Tow, William T. 1994. "China and the International Strategic System." in Thomas W. Robinson and David Shambaugh, eds. *Chinese Foreign Policy*, 115-15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urnbull, Stephen. 2002. *Samurai Invasion: Japan's Korean War 1592-1598*. London: Cassell & Co.

Van Evera, Stephen. 1997. *Guide to Methods for Students of Political Sci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Van Evera, Stephen. 1999. *Causes of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Vasquez, John A. 1997. "The Realist Paradigm and Degenerative versus Progressive Research Programs: An Appraisal of Neotraditional Research on Waltz's Balancing Propos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December), 899-912.

Walt, Stephen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Walt, Stephen M. 1997. "The Progressive Power of Real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December.

Waltz, Kenneth N. 1979.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Waltz, Kenneth N. 1986. "A Response to My Critics."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322-345.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Waltz, Kenneth N. 1997. "Evaluating Theor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December.

Whiting, Allen S. 1960. *China cros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Whiting, Allen S. 1975. *The Chinese Calculus of Deterrence: India and Indochina*. Ann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岸本美緒. 宮嶋博史 저. 김현영 외 역. 2003.『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서울: 역사비평사.

『李文忠公全書: 譯署函稿』

『滿文老檔』

『淸太宗實錄』

『明神宗實錄』
毛澤東. 1971.『 毛澤東選集』. Vol. 4. 北京: 人民出版社.
王薇, 楊效雷, 吳振淸. 2002.『中朝關係史』.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周恩來. "抗美援朝保衛和平."『周恩來選集』
http://www.people.com.cn/GB/shizheng/252/7619/7646/2540425.html (검색일: 2005. 9. 15).
李鴻彬. 1988. "試論 '丁卯之役'."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편. 明淸史. K24. 1988.1, 47-54.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彙編 1』. 北京.
『人民日報』1950/06/29; 1950/07/06; 1950/08/07.